

북한 연구와 신유물론의 접점: 일상생활연구를 위한 ‘행위적 실재론’·‘사이보그 선언’의 방법론적 가능성*

박민주**

- I. 서론
- II.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 고찰
- III. 신유물론적 북한 연구: 우려와 효용
- IV. 신유물론적 북한 일상생활연구 예시
- V.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시장화 이후 북한의 물질-사회적 급변
현상과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에 주목하여, 북한 연구에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을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검토 결과, ‘인간으로의 전회’가 절실한 북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신유물론은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
주민의 소외나 파편화를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
절한 방법으로 일상을 재구성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재발견하며 주민 실천의 다중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물질(키워드)을 실마리
삼아 일상세계를 서술하고 기호학적 접근을 가미할 때,
낮은 자료접근성의 문제도 일부 해결하면서 통치-물질-
일상의 연계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주제어: 북한학, 일상생활, 북한학 연구방법, 신유물론,
행위적 실재론, 사이보그, 물질-사회

* 이 연구의 4장은 저자가 통일연구원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발표한 비공개 자료 일부와 2022년
5월 27일 ‘2022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학술대회: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서 발표한 “북한과
SDGs: 과학기술학으로 다시 보기”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I. 서론

이 연구는 캐런 버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과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선언(Cyborg Manifesto)’을 중심으로 신유물론적 관점·방법이 북한 연구, 특별히 일상생활 연구에서 갖는 가능성과 구체적 연구방법을 탐색함으로써 북한 일상생활 연구 확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장화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에 연계된 다양한 변화들이 포착된다. 물질¹ 배치(배분) 체계의 일부 전환, 새로운 물질의 등장과 외부로부터의 물질 유입, 이로 인한 사회·기술적 변화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물질 배분 체계의 경우, 시장화 이후 북한당국이 여전히 전권을 쥐고 직접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시장이 전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시장을 경유하여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고 일부는 크게 유행하며 일상의 패턴을 변화시켜왔다. 새로운 물질들은 이전과는 양적·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외부 문화 콘텐츠 혹은 정보를 빠르게 유통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병입생수가 홍보·판매되며 휴대폰과 일체화 된 ‘스몸비’들이 나타나고 반려견과 강변을 산책하거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열심인 주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휴대폰은 네트워크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장사를 위한 시간적, 화폐적 중간 비용을 감소시키기도 한다.² 광범위해진 마약 사용의 ‘부작용’은 물질이 ‘인간의 삶’ 혹은 ‘사회현상’에 개입함으로써 빚어지는 역동을 발견하게 한다. 이처럼 비인간이 시장화 이후 북한 사회와 주민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는 점은 2020년 이후 진전된 신유물론적 연구들에 의해 뚜렷하게 드러난다.³

¹ 이 연구에서 ‘물질’은 대체로 비인간 요소를 뜻하지만, 인간 또한 물질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질’이란 비인간/인간의 구분 없이 모든 ‘matter’를 지칭하기도 한다. 다만, 신유물론 관련 국내 문헌에서 비인간을 주로 “물질”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연구 또한 그러한 용례를 따르다 보니 본질적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다. 관련하여 각주10 참조.

²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pp. 7~40.

³ RISS 검색 결과(2022.05.04.), 그간 북한 연구와 신유물론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중심으로 접합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2010년대 초중반 동국대학교 소속 연구자들과 연구팀이 한반도 평화, 분단/탈분단, 북한-북한이탈주민, 연구방법론 등의 다양한 주제에 ANT를 적용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다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중 일부는 다음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고유환 외,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 연구센터 편,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파주: 한울아카데미,

다만 북한 연구에서의 신유물론 활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우려의 견해 또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통)인간으로의 전회’조차 충분하게 진전되지 않은 북한 연구계에서, ‘유물론적 전회’는 북한 주민을 파편화시킬 위험이 있는 너무 성급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학적 분석보다는 물질 혹은 현상의 기술에 끝나지 않을지 등의 걱정 섞인 질문이 산재해있다. 이런 의문의 기저에는 북한학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신유물론의 세계적 유행과 별개로 국내 인문사회학 전반에서는 아직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신유물론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고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을 소개한 뒤, 북한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유용성을 따져보고자 한다.⁴ 행위적 실재론이 ‘현상 기술에 그치고 마는’ 신유물론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⁵ 사이보그 선언이 신유물론의 상징적 이론이라는 점,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상황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두 이론을 선택하였다.

둘째, 북한 일상생활 연구에서 물질-인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의 함의와 가능성을 논하고 그 구체적 연구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북한학의 토양과 조건에 맞게 신유물론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목표에 따라, 2장에서는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이 갖는 이론적 핵심과 함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각 이론과 관련하여 북한 연구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답하고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데 이들 이론이 갖는 강점을 읽어낸다. 또한 행위적 실재론의 적용이 기존의 신유물론적 흐름에서, 일상생활연구의 흐름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2015). 이후 ANT를 활용한 북한 연구는 2020년부터 재개되어 분단 및 교류(이현희, “남북민간교류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2001년 민족통일대추전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2020), pp. 191~223), 핵 동맹(정호근, “ANT로 본 북한 핵·동맹 네트워크: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제63권 4호 (2020), pp. 37~69), 북한이탈주민 송금(김경렬,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분석: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pp. 107~142)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휴대폰(위의 글, pp. 7~40) 및 전력(박민주,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北韓研究學會報』, 제25권 2호 (2021), pp. 41~77)과 관련한 일상생활 연구도 발표되었다.

⁴ 사이보그 선언과 행위적 실재론이 갖는 이론적 위치나 함의가 다르므로 한 논문에서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북한학의 입장에서 신유물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북한학계에서 신유물론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충분히 함께 다룰 수 있고 또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⁵ Christopher N. Gamble, Joshua S. Hanan, and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vol. 24 (2019), pp. 111~134. <<https://doi-org.sproxy.dongguk.edu/10.1080/0969725X.2019.1684704>> (Accessed June 18, 2022).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의 이론적, 성찰적 고찰을 실제 북한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특히 일상생활 연구에서 ‘물질’을 어떻게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본다. 5장은 결론으로 북한 연구에 신유물론을 활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와 함의 등을 논한다.

II.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 고찰

20세기 말 등장한 신유물론은 다양한 분파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그간 학문 체계가 인간 중심주의적(anthropocentric)·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사조를 허용하면서 인간과 그 행위성은 평가절상하고 비인간/물질의 행위성은 가치절하해 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⁶ 따라서 신유물론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 비인간의 역량/행위성에 대한 (재)발견, 인간-비인간 사이의 관계와 향후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전회”는 이제 학계를 넘어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측면, 곧 SDGs 등 지구 공동 의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COVID-19, 각종 안전사고 등은 신유물론적 성찰의 필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1. 행위적 실재론: 인간과 물질의 얽힘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따르면, 인간이나 물질은 독립적이지 않고 ‘얽힘(entanglement)’ 상태로 존재한다. 바라드에게 주체와 대상이란 선형적으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물리-개념의 혼종 속에서 ‘내부-작용’ 혹은 ‘간-행(intra-action)’하며 상호구성하는 현상이다.⁷ 여기서 ‘내부-작용’이란 개별 존재들의 독립성을 전제한 ‘상호작용’과 구분되는 것이다. 인식론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얽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⁸ 따라서 실재(reality)의 본질은 존재가 아닌

⁶ *Ibid.*

⁷ 캐런 바라드, 박미선 역,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문화과학』, 제57호 (2009), p. 75.

⁸ 조주현,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한국여성철학』, 제25권 (2016), pp. 74~75.

행위/행위성(agency)이며⁹ 이러한 행위성은 인간·비인간, 물질·담론의 어울림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련의 성분들이 반복적 내부·작용을 할 때서야, 하나의 “물(matter)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¹⁰

행위적 실재론은 물질, 인간 어디에도 우위의/독립적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버라드는 “주체와 대상, 자연과 문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의 구분에 권력이 적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이 적재된 구분이 발생시키는 결과들을 검토” 할 것을 주장하였다.¹¹ 이는 인식론적 존재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도, 사회에 의해 구성되기만 하는 것도 아님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재론과 사회구성주의 각각의 한계와 두 이론의 이분법적 간극을 뛰어넘는다.

물질적 요인을 사회구성주의 설명틀 속에 통합하려는 노력은 물질세계를 담론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재설정하거나 자연을 의인화하는 환원적 선택으로 인해 허약해 지곤 했다. 다른 한편, 실재론적 설명틀에 담론적 요인을 통합하는 것은 언어의 표상적 지위에 대한 재고와 담론의 생산적 차원을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의해 좌우 되곤 한다.¹²

버라드의 입장에서 하나의 인간/비인간에게 독립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인간주의로 환원된다. 특히 우리의 인식이 비인간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물질의 능동성, 행위성을 다룬다고 해도 인간 연구자는 물질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주체성 역시 연구자(인간)의 입장에서의 서술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행위소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행위의 수립, 얽힘을 재배치하기 위한 가능성”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³

⁹ 이지선, “물질과 의미의 물의(物議) 빚기 -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 -,” 『시대와 철학』, 제32권 1호 (2021), p. 255; 임소연, 『과학기술의 시대, 사이보그로 살아가기』 (파주: 생각의 힘, 2014), p. 69.

¹⁰ 임소연, 위의 책, p. 70. 임소연은 다른 저작에서 matter를 물(物)로 번역하였는데 사물(thing), 물질(material)과 구분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임소연,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3호 (2019), p. 186). 이러한 용례는 ‘물’의 의미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재적 사물. 또는 느낄 수 없어도 그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일체의 것(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2.06.19.)”이라는 점에서, 현상이 존재론적 기본 단위라는 버라드의 이론을 충분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¹¹ 캐런 버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p. 67.

¹² 위의 글, pp. 66~67.

¹³ 카렌 버라드·릭 돌피언·이리스 반 데어 툴, “카렌 버라드와의 인터뷰”, 릭 돌피언·이리스 반 데어 툴 엮음, 박준영 역, 『신유물론』 (경기도: 교유서가, 2021), p. 75.

행위적 실재론은 보어의 양자역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양자역학의 발견은 결정성 중심의 고전역학에서 불확정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적 의미를 지닌다. 보어 이전의 학자들은 원자모형을 고정된 궤 또는 연속적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보어는 전자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어 전자는 불연속적이고 불규칙적 방식으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고 보았다. 보어에 따르면 관찰자 또한 관찰자가 “이해하려는 자연의 일부(중략)”로서 지식은 측정과정, 곧 의미화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¹⁴ 단어와 사물은 일치하지 않으며 “대상의 속성은 측정 행위 전까지 비결정의 상태”인 것이다.¹⁵ 이러한 실재 혹은 행위성은 측정자에 의해 ‘절단(Cut)’되는 것일 뿐 완벽하게 파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존재의 기본 단위를 개체에서 현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학기술학자 임소연은 버라드의 관점에 따라 현상의 내부-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과정에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존재가 아니라 행위라고 해서 (인식론적)존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위에 주목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존재들과 그것들의 더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게 된다. 이질적인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존재들 사이에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¹⁶

여기서 ‘새롭게 발견된 인식론적 존재’란 우리가 그 비가시성이나 우연성 탓에 종종 간과하는 존재들이다. 예를 들어, 뢰트젠은 다른 목적의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X선을 발견하고 손으로 책을 잡아 가림막으로 세우고 음극선 관으로부터 자외선을 방출시켰다. 이 과정에서 책 안에 있던 열쇠와 뢰트젠의 손가락 뼈가 투시되었다. 이 때, X선의 발견은 과학기술지식을 지닌 뢰트젠(인간), 음극선 관, 광선 뿐만 아니라 책 안의 열쇠, 뢰트젠의 손가락 뼈가 내부-작용한 결과이다. 연구자의 노력과 객관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예상치 못한 요소의 개입 덕분에

¹⁴ 조주현,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p. 73.

¹⁵ 이지선, “물질과 의미의 물의(物議) 빚기 -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 -,” p. 251.

¹⁶ 임소연, 『과학기술의 시대, 사이보그로 살아가기』, p. 78.

가능했던 것이다.¹⁷ ‘과학적’ 발견에 기여했음에도 이런 존재들은 후일 에피소드나 여담 정도로 구전되고 책 귀퉁이 어딘가에 짧게 기록되며 아예 잊혀지기도 한다.

버라드의 행위적 존재론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혹은 비가시적이었던 물질들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의 실천을 가시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사적이고 저평가된 노동(자)들, 의사의 치료 및 처방 행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간호사의 노동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¹⁸ 이는 임금 노동-비임금 노동, 공적 노동-사적 노동, 생산 노동-재생산, 가시적 노동-그림자 노동 등 전향-후향의 관계에서 주로 후향에 위치해왔던 노동과 그 전담자들에 대한 재발견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 공적 기록에서 누락된 이들의 삶을 발굴해내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거시적 정치사나 주요 정치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기존의 주류 역사연구와 북한 연구에서도 그간 소외되어왔던 보통사람들,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삶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상수도, 전력 등 국가주도의 공급인프라가 끊겼을 때, 그 공란을 메꾸어 낸 보통 사람들의 역사 혹은 민중과학사가 발굴될 수 있다. 물론, 기존 학문세계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추적하기에 행위적 존재론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 현상 속에서 ‘연루된 물질’들을 발견해내다보면,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인식론적) 존재들과 그 역사를 발굴할 가능성도 커진다.

행위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식도, 사회적 현상도 절대적이라거나 누적적, 인과적이지 않으며 우연적이며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하는 복잡한 관계로서 존재한다. 또한 측정자, 측정시간, 측정방법, 측정기구, 측정공간 등의 모든 가시적/비가시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측정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측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회절적 독해(diffractive reading)”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¹⁹ 회절의 흔적이 분절적으로 나타났듯 연구자가 성실하게 기록하더라도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적 실재론은 물질/담론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자의 성찰성을 강화하도록 일정한 틀을 제공한다.

¹⁷ 플레밍의 페니실린과 스톤&게를라흐의 원자 스핀 발견 역시 유사한 사례이다.

¹⁸ 임소연, 『과학기술의 시대, 사이보그로 살아가기』, pp. 81~82

¹⁹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p. 69.

2. 사이보그 선언: 자연-기계(물질)-인간의 일체화

사이보그란 ‘Cybernetic Organism’의 줄임말로 인간-기계 혼종체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주로 공상과학에서 등장했으나 1985년 해러웨이(Donna J. Haraway)가 “사이보그 선언(Cyborg Manifesto)”을 발표한 이후부터 여러 학계와 사회 일반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가 “인공 두뇌의 유기체,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 허구의 피조물, 사회적 실재의 피조물”²⁰ 이라고 정의하였다. 해러웨이는 푸코를 재해석하면서 사이보그가 “사회적, 육체적 실재의 지도를 만드는 허구”이며 현세의 인간은 “모두 기계와 유기체의 이론화되고 제작된 잡종인 키메라(chimera)” 곧 사이보그라고 선언하였다.²¹ 사이보그란 “인종차별주의적 전통, 남성지배적 자본주의적 전통, 진보의 전통, 자연을 문화 생산의 자원으로 전용하는 전통, 타자의 반영으로부터 자아를 재생산하는 전통”에서²² 자유로우며 국가사회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사생아 자손”으로서 “자주 지나치게 자신들의 기원에 불충실”하다.²³

특정한 이원론들이 서양 전통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들은 모두 여성들, 유색인들, 자연, 근로자들, 동물들 등의 지배(요컨대 타자로서 구성된 모든 것의 지배이며, 이 타자들은 자아를 반영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논리와 관습에 체계적이었다. 이런 골치 아픈 이원론들 중 주요한 것은 자아/타자, 정신/몸, 문화/자연, 남성/여성, 문명화된/원시적인, 실재/외양, 전체/부분, 행위자/자원, 제조자/제조물, 능동적/수동적, 옳은/그른, 진리/환상, 총체적/부분적, 신/인간 등이다 (중략) 하이테크 문화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런 이원론들에 도전한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들어지는지 분명치 않다. 코드화 실천으로 용해되는 기계속에서는 무엇이 정신이고 무엇이 몸인지 분명치 않다 (중략) 왜 우리의 몸은 피부에서 끝나거나, 기껏해야 피부에 의해 싸여진 다른 존재들을 포함하는가?²⁴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은 이분법의 해체를 목표로한다. 이분법은 근대 철학의 기저를 이루는데, 분류의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경우 두 항목 사이의 차등으로

²⁰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서울: 동문선, 2002), p. 267.

²¹ 위의 책, p. 268.

²² 위의 책, p. 268.

²³ 위의 책, p. 270.

²⁴ 위의 책, pp. 317~319.

귀결되었다. 특히 자연/동물을 인간과 엄격하게 분리하고 정복 대상으로 여긴 근대적 발전은 환경오염, 자연재해를 결과하였다. 이분법에 근거한 자연파괴적 발전이 지속되면서 인간 또한 생존을 위협받게 된 것이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을 통해, 남성-여성 뿐만 아니라 인간-자연, 인간-동물, 유기체-기계, 물리적인 것-비물리적인 것 등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들을 해체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잘 알려진 게놈(Genome) 지도가 보여 주듯, 생물학에서 인체/유기체는 코드화 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공심장, 인공수족, 인공자궁 등 기계-유기체 혼종의 개발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주지할 것은, 해러웨이가 과학기술을 무조건 유용한 것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러웨이는 “이 둘은 모두 주술적인 춤 속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신보다는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²⁵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여신도 사이보그도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다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형을 모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아의 분열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기계와 인간의 혼종체가 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일 뿐이다. 해러웨이는 과학기술이 인종, 젠더, 경제적 차별을 증첩시키며 발전해왔음을 지적한다.

원형적 실리콘 벨리에서는 많은 여성들의 삶이 전자-의존적 직업에 고용됨으로써 구조화되었고, 연속적인 이성애적 일부일처제, 타협적 육아, 확장된 혈연 혹은 다른 형태의 전통적 공동체로부터 멀어짐, 높은 가능성의 고독,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극단적인 경제적 취약성 등이 그들에게 친밀한 현실들이 되었다. (중략) 노동은 남자에 의해 수행되든 여자에 의해 수행되든 간에 문자 그대로 여성적이고, 여성화된 것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여성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의 노동은 지극히 교묘하게 열악한 조건들로 점철된다. 기술발전에 따라 탈숙련화가 발생하고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를 선호 하면서 반도체, 휴대폰, LCD 등 하이테크 제조업 공장은 제3세계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게 재구조화된 결과가 바로 ‘노동의 여성화’이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고 작업지시를 잘 이해하는

²⁵ 위의 책, p. 325.

²⁶ 위의 책, pp. 296~297.

(간단한 외국어를 이해하는) 젊은 제3세계 여성은 ‘질 좋은 노동력’으로 선호된다. 해러웨이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선호 때문이 아니라 생식, 문화, 소비, 생산 전반에 걸쳐 이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기계/기술의 얽힘은 ‘어떤’ 기술/기계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분법 만큼이나 이중적 접합 역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III. 신유물론적 북한 연구: 우려와 효용

1. 우려에 대한 검토

북한 연구 일각에서 신유물론에 표하는 의문은 물질적 전회의 시의성 및 주체의 전복 문제이다.²⁷ 인간 소외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은 통치, 정치체제, 지도자 개인, 군사 등에만 천착했던 기존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국가라는 억압성으로는 다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실천과 전략으로 이루어진” 일상생활 연구에 주목하고자 했던 성찰과 맞닿아 있다.²⁸ 특히 시장화 이후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가 명확한 만큼, 보통사람과 그 일상에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 연구에서 ‘신유물론’ 혹은 ‘물질적 전회’는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총체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물질 우위의 주체성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는 수용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신유물론적 접근이 어떻게 연구에서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지, 그간의 인간소외적 연구 경향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물질과 불가분한 인간의 삶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삶은 인간만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인간과 그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유한성, 물질의 개입, 인간-물질의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물질을 떼고 일상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인간의 기초적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산소, 온도, 물, 에너지(원)가 존재해야만 한다. 또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질과 물리적

²⁷ 신유물론이 개입된 연구가 학문적 토론의 장에 등장할 때, 이러한 논의가 종종 개진된다.

²⁸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2008), p. 11.

공간이 있어야 위협적 동물, 추위, 배고픔, 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비인간과의 공존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넘나들며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바, 그간 서양/유럽 학문체계는 인간과 그 ‘유일한’ 행위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비인간 혹은 물질의 능동성을 간과, 부정, 가치 절하해왔다.²⁹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상정하는 발전우선의 논리는 산업혁명 이후 생태계를 불가역적 방법으로 훼손시켰다.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인류세 (Anthropocene, 人類世)”의 지속을 위협한다. 핵개발, DDT 후유증,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인재(人災) 역시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당국 또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주목하고 2021년 SDGs 이행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나름대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연을 무조건적 개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이전의 시각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2010년대 들어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병입생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고 순환형 농축산업에 주목하는 것을 보면, 지속가능성과 생존의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와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물질에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다만, 물질의 영향과 개입을 인정하는 것과 물질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단순히 이야기해서, ‘인간이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라는 명제는 ‘인간은 주체가 아닌 절대적 타자이다’라는 명제와 분명히 다르다. 인간의 유아독존적 태도를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성찰의 관점과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인간을 타자화하거나 주체의 지위에서 탈각시켜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이론 역시 물질의 주체성이 인간의 주체성을 뛰어넘는다고나 압도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인간을 제쳐두고 물질에만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둘 사이의 어울림과 그 새로운 효과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번역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물질적 전회, 신유물론, 신물질주의’ 등의 용어 (“-ism”이 종종 “주의”로 번역되기 때문에)가 주는 도그마적 이데올로기의 이미지 탓에 오해가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신(新)유물론

²⁹ Christopher N. Gamble, Joshua S. Hanan, and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이라는 단어에서 사회주의와 (구)유물론의 접점이 환기되는 까닭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신)물질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부재하기 때문에 큰 효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언어적 한계는 신유물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져야만, 대대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든 혹은 대체 용어의 발견을 통해서든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간 주체의 재발견: 배제/누락되었던 인간성‘들’의 회복

신유물론, 특히 사이보그 선언에 관한 가장 큰 우려는 인간성의 훼손 혹은 타자화에 관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지능 이상의 지적능력을 통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 이는 정당한 문제의식이지만 해러웨이의 주장을 살펴볼 때, 사이보그 선언은 기계의 인간 지배를 주도하거나 인간 존엄성을 폐기할 것을 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간 배제되었던 다양한 인간성의 발견을 요청한다.

해러웨이는 과학자와 과학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객관성이 기실 적지 않은 편견으로 점철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과학자 역시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믿거나 말하는 내용과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³⁰ 해러웨이의 입장에서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은 논쟁할만한 텍스트이고 권력의 장”이며 “선량한 과학의 양을 편견과 오용의 사악한 염소와 분리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필요하다.³¹ 과학/자연, 남성/여성, 문명/이성 등 차등적 이분법이 신념화되면서 후향에 위치한 이들을 배제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지식의 불완전성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사이보그 선언은 인간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계급 탓에 소외, 배제, 억압받는 타자들의 주체화를 의도한다. 그간 ‘인간’ 범주 속에는 주로 백인, 남성, 비장애인 등 소위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만이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민중사, 일상사, 여성사 등이 태동하여 타자였던 이들의 흔적과 목소리를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연구에서도 정치, 군사, 정책 등의 연구에서 일상생활, 여성사, 소수자 등으로 연구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그간 미뤄졌던 만큼, ‘보통 사람들과

³⁰ 다나 J.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p. 329.

³¹ 위의 책, pp. 331~333.

그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지점을 고려할 때, 사이보그 이론은 그간 소외된 북한 주민 주체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시각을 확장시켜줄 가능성을 지닌다.

2. 북한 연구에의 효용

북한 연구에서 물질에 주목하는 것은 주민의 일상과 사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물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민의 삶에 관여하는 물질‘도’ 다룸으로써 ‘물질’이라는 실마리 혹은 프레임으로 일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신유물론적 접근이 북한 일상생활 연구에서 발휘할 수 있는 효용을 살펴본다.

가. 일상생활사와 신유물론의 접점: 행위성의 입체성, 다중성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겠지만,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그의 행위성을 단언할 수 없는, 혼종적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20대의 여성이 당국이 시청을 금지하는 남조선 드라마를 즐겨보고 화면에 나온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면서, 고가의 ‘장군복’을 맞춰 입고 뿌듯해하며 최근 유행하는 ‘당상’을 비공식적으로 구입해서 왼쪽 흉부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북한당국에 대한 이 여성의 행위성은 순응, 저항, 협상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 여성의 행위를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있을까?

통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휘장’을 달고 “장군님”의 스타일을 따라 ‘장군복’을 입는 것은 당국의 규율에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런 물품의 유행은 통치와 시장의 협업, 곧 물질에 기획된 통치와 개인의 자기 욕망이 시장을 경유하여 동반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남조선 드라마에서 나온 “풀어헤친 머리”를 하고 있는 “황색바람이 든” 모양이다. 소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가 불법인 ‘당상’을 구입하고 단속하는 방식의 머리 스타일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꾸미고 타인과 차별화하는, 욕망의 해소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휘장이 없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매일 휘장을 부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무의식적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존재한다. 이처럼 하나의 현상에서 발견되는 다중적 ‘개인의 모습/행위성(들)’은 관찰자의 한계 탓에 분절적,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현상 안에 포괄된다.

행위적 실재론에 따르면, 상술한 여성의 행위는 단일한 요소로 설명될 수 없다. 그가 유일한 혹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현상에서는 여성보다 오히려 시각적 실체로서 당상, ‘장군복’ 등이 더 광범위한 내부-작용을 하는 요소일 수 있다. 한 사람의 몸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현상은 여성의 몸, 몸에 부착된 장군복, 초상화, 헤어스타일, 그리고 규범, 통치, 시장, 외부컨텐츠, 욕망 등의 얽힘을 연구자가 부분적으로 포착한 결과일 뿐이다. 연구자가 자름의 중심을 ‘인간’에게만 두기 때문에 ‘인간 너머’까지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탓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시장), 통치/규율, 습관, 자기만족과 같은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히 서로 대립하기만 하는 것도, 또 완벽히 서로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내부-작용은 다각도에서 접근되어야만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이 여성(개인/주민)을 유일한 행위자로 본다면, 그가 연루된 다양한 요소들은 제거되고 그는 파편화 된 모순적 존재로 해석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일상연구의 원래 목적과 달리 북한 주민의 삶을 타자의 시선에서 재단 혹은 대상화할 위험이 있다. 인간을 유일무이한 주체로 상정하면 책임 또한 인간에게 귀결된다. 따라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인정하되 어느 쪽도 주체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서 일방을 우위에 두지 않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요소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해러웨이가 말한 “겸손한 목격자”로서,³² 버라드가 말한 “회절적 독해”를 수행하는 태도일 것이다.

일상생활연구에 신유물론적(행위적 실재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일상생활사는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이 얼마나 능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전염병, 자연재해, 폭발/중단/고장 등의 ‘사고’, 마약(중독)과 같은 ‘사건’들은 일상생활연구에서 주로 인간의 대응/행위가 발생하게 된 단발적 원인으로 다뤄져왔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주민의 대처, 피해, 극복노력 등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연구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 비인간, 물질, 비물질의 다양한 요소들이 연루되어 있다. 인간은 일방적인 현상에 대응하기만 하는 존재도, 이 현상을 ‘극복/대응’해나가는 유일무이한 존재도 아니다. 가령, 코로나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매개체를 통해서도 감염되며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박멸’되지

³² 자신의 절대적 도그마가 아닌 상황에 따라 사실을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양코마우스TM를_만나다』(서울: 갈무리, 2007) 참조.

않고 계속 변이를 만들어낸다. 기계는 예상치 못하게 고장나며 오랜기간 유지보수 되지 못한 인프라 시설은 주민의 일상을 번거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둘째, 일상생활연구의 방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시적 사례를 서술하는데 그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전체 자연 현상의 일부로서 일상 생활에 작용하는 ‘인간’ 외부의 힘, 자연의 성질, 물질성 등을 보다 뚜렷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세한 지형을 읽는 까닭은 일시적 순간이동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지도를 읽어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그간 생기적 신유물론(vital new materialism),³³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³⁴ 등 (행위적 실재론을 제외한) 신유물론의 하위 이론들이 지녔던 한계이기도 하다. 이 두 종류의 신유물론은 비인간의 능동성을 근거로 인간-비인간 공존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효하지만, 능동성을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힘 간의 역동과 공존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고민은 불충분하다.³⁵ 이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비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보다는 두 요소를 단절시킴으로써 신유물론의 가치를 ‘SF소설 같은 이야기’로 오해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³⁶ 따라서 단순히 비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비인간-인간의 얽힘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사회적 이슈들의 분석과 함의를 풍성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사이보그들: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역량획득

기계/기술이 차별/억압의 경계를 허무는 동력이라는 해러웨이의 주장은 북한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물질 간의 복잡한 얽힘이 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계/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개별 주민은 사이보그의 요소로서 새로운 행위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회·기술적 문제들이 사회에 개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대다수 인프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의 공급망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이나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소유한 배분의 권리 일부가 주민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용

³³ 상세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제인 베넷,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서울: 현실문화, 2020).

³⁴ 상세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켄탱 메이야수, 정지은 역, 『유한성 이후』 (서울: 도서출판 b,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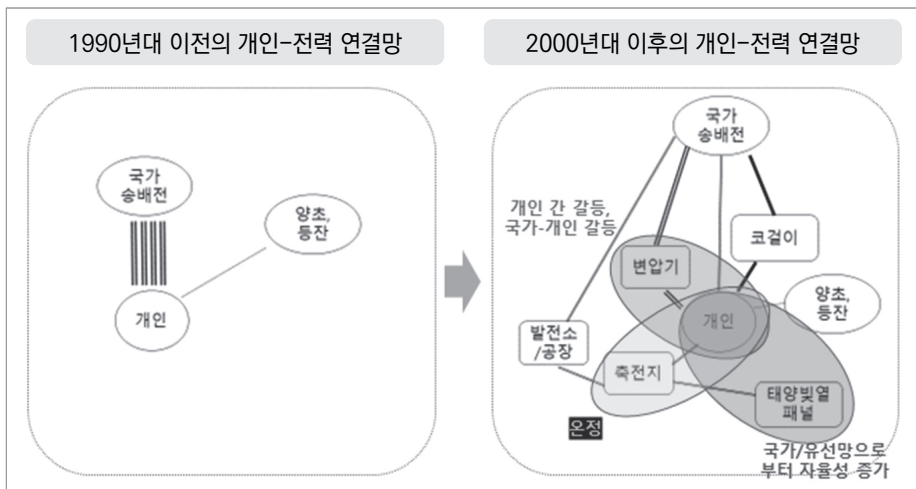
³⁵ Christopher N. Gamble, Joshua S. Hanan, and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³⁶ 이러한 지적은 ANT 연구에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며, 보통 ‘사회현상’이라고 부르는 사안에 대해 신유물론적 해석이 매우 협소하거나 불충분하다는 비평을 동반한다.

되기도 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축전지를 연결함으로써 더이상 국가주도의 전력공급을 기다리지 않으며 변압기를 두어 기존에 국가가 독점하였던 배전권을 일시적이거나 전유한다.³⁷ 일방향의 전력공급은 다양한 기술-사회적 노드의 등장으로 다각화되고 인간-비인간의 결합 속에서 국가-주민, 주민 간의 갈등과 협력관계도 재편된다(〈그림 1〉). 이처럼 시장화 이후 주민-기계의 결합은 새로운 역량을 발현시키고 새로운 사회-기술적 변화들을 촉발한다.

또한 시장화 이후 시장을 경유하여 다양한 물품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었다. 2010년 이동통신 서비스가 재개된 후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폭증하였고 이제 북한사회에서 휴대폰은 금전거래, 장사의 중요수단이자 사회경제적 지위를 입증해주는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휴대폰을 이용한 거래 당사자들은 중간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³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휴대폰을 가진 사람(사이보그)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휴대폰이 확산되면서 게임 중독과 전화예절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1〉 시장화 전후 개인-전력망의 변화³⁹



³⁷ 이 사례는 다음 연구 참조. 박민주,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³⁸ 이 사례는 다음 연구 참조.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³⁹ 2000년대 이후에는 갈등, 협력/온정주의,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등 새로운 기술-사회적 관계들이 나타난다. 출처: 박민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시스템의 혼종적 전환 -,” p. 52를 편집

회의장이나 모임장소 같은데서 손전화기소리가 울리게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거나 버스나 전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⁴⁰

학부형들은 자식들에게 게임 중독의 해독성을 잘 설명해주고 게임을 절제있게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중략) 손전화(휴대폰)나 컴퓨터, 오락기구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한편 그들이 다양한 과외생활을 벌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통해 오락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⁴¹

사이보그를 구성함으로써 각 요소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행위능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이는 휴대폰이나 사용자 혼자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며 단순히 기계/인간 존재에서 기인한 능력도 아니다. 기계를 작동하는 인간, 인간의 작동에 반응하는 기계, 이 과정에 필요한 통신망/시장/네트워크 등이 공존해야만 새로운 존재(사이보그)와 그 역량이 드러날 수 있다.

사이보그로서 북한 주민을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 주체의 가능성을 과장하지도 폄하하지도 않고 보여준다. 그들의 변화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모든 사안(특히 체제유지 혹은 체제전복)을 해결해줄 마스터키라고 과장하지 않는 것이다.

꼭 이런 하이테크 사례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배치된 노동현장에서 도구/기계/물질과 일체화 된 노동을 수행할 때의 혼종적 경험을 파악할 수도 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은 자연-인공-노동자 인간이 일체화되는 과정이다. 노동은 배급, 사회생활의 전제조건이며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이보그로서의 몰입, 물리적/물질적 활동에 대한 보람, 사회적 인정과 같은 경험을 동반하기도 한다.

다. 일상세계 혹은 일상사의 재구성 기준점으로서의 물질

물질적 고찰은 인간의 삶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가능성을 지닌다.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얽혀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북한 주민의 일상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⁴⁰ “전화를 할 때의 레의도덕,” 『민주조선』, 2019.11.26.

⁴¹ “[정세해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전자오락중독,” 『로동신문』, 2018.10.12.

첫째, 연구자가 타인을 인지하고 그 일상생활의 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넓은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간 연구자들은 시간(시계열, 일과, 생애주기, 연간/계간), 의식주 생활, 관혼상제 등의 의례, 의식 등에 주목하여 북한 주민의 일상과 사회변화를 다루어왔다. 후속연구들로 선행연구의 의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분석의 단위/기준과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 때, 비인간은 인간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 가장 애착하는/귀한 물건, 일상 필수품, 일과에 등장하는 물건들을 통해 일상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물질을 통해 국가, 수령, 통치, 제도 등이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⁴² 북한 주민이 겉옷에 “모셔야 하는” 휘장, 건물 안팎에 걸린 초상화, 지도자 얼굴이 나온 노동신문 1면 등이 그 사례이다.

둘째, 직접적 참여관찰이 불가능하고 입수할 수 있는 자료도 한정된 상태에서, 자료를 선별해내거나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층면담은 아무리 연구자의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또한 완벽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자가 질문을 구체화하고 대상자의 기억을 이끌어내듯, 북한 공간문헌을 분석할 때도 물질의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로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이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 공간문헌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다양한 키워드는 수많은 문장과 문헌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일상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광범위하고 아주 세밀하기에 분석의 기준 혹은 항목이 없다면 자칫 아주 산발적인 현실의 기록으로만 남겨질 수 있다. 다만 그 기록조차 부재한 것이 현실이기에, 연구주제 및 물질의 기능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상의 기록을 수집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내용을 통해 사회 유지/변화의 동력, 북한 사회 특유의 속성, 개인들 내부의 공통적이고도 서로 다른 욕망들, 향후 북한 사회변화의 전망 등을 도출해낸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⁴²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홍민,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p. 149~150.

IV. 신유물론적 북한 일상생활연구 예시

1. 주요 물질 키워드를 통해 일상세계를 읽기

이 장에서는 북한 연구에서 신유물론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별히 일상세계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주요 ‘물질’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한 생활세계를 서술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앞서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 모두에서 강조하였듯, 그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개별 요소들의 (인식론적) 존재를 발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연구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행위적 실재론에서 언급한 ‘물질-인간’ 사이의 얽힘을 최대한 성실하게 읽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가. 공간별 물질 파악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 공간과 그 특성, 해당 공간에서의 행위 등에 따라 관련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표에 공간에 따른 분석 내용, 관련 물질(비인간)의 예를 들어보았다.

〈표 1〉 공간 및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추출한 비인간 요소

공간	분석 내용	비인간 요소
학교	사이보그로서의 새로운 역량, 정체성	ICT기기(휴대폰, 태블릿 등), 컴퓨터 과목, 꼬마과제물, 교복, 소년단 스카프
군대	자연-인간 관계, 군대문화	삼, 총, 군복, 주둔지역, 근처 민가, 건설, 트럭

출처: 연구자가 기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동일한 물질이라도 개인에 따라 경험이나 의미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 경험 시기에 따라 중요한 물질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 공간을 예로 들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이후 컴퓨터 및 정보기술 교과시간에 ICT기기를 지참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2010년 초반부터 휴대폰이 유행하면서 통신기능이 되는 ‘진짜’ 휴대폰을 가진 학생도 있지만 손전등 기능만 있는 ‘가짜’ 휴대폰을 가진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중학생과 2010년대 후반 중학생의 학교생활은 그 구성요소(물질)가 다르며, 동시대를

산다 해도 각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개입된 물질과 그 성격도 다르다.

학교에서 학생-물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얹힐 수 있다. 학생의 역량, 정체성, 장래희망 등이 물질을 통해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등은 학생들에게 과학자 되기를 장려하면서 수학 및 컴퓨터 수업에 방점을 두지만, 학생 개인은 그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똑같이 과학자 되기를 지망해도 A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인 반면, B는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며 정보를 인식하고 키보드로 정보를 처리(처리를 명령)하는 ‘학생-모니터-키보드-컴퓨터’의 사이보그적 결합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아날로그적 물질도 중요하다. 소년단 스카프를 매고 있다는 것은 학생의 연령대를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모든 친구들이 소년단 스카프를 매고 있는데 유독 자신만 매지 못했다면, 이것은 기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만 입단 선서를 외우지 못한, ‘열등성’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물질의 유무에 따라 다른 공간일 수 있다. 시장화 이후 활발해진 사교육 공간과 학교는 교육이 전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두 공간을 구별하는 중요한 물질적 차이 중 하나는 “꼬마과제”이다. 학교는 꼬마과제물을 내도록 요구하지만 사교육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 그러므로 꼬마과제물은 학교라는 공간 혹은 공교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사교육 공간/시스템으로부터 구별짓는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군대의 경우, 대상 건설 과제에 끊임없이 투입되는 군인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총 대신 삽을 더 자주 들게 된다. 이 때, 군인은 ‘사람+군복+총’의 복합체가 아니라 ‘사람+군복+삽’의 복합체로서, 총을 든 복합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제대군인이라도 총이 더 친숙한 경우가 있고, 삽이 더 친숙한 경우도 있다. 특히 김정은 이후 각종 건설과제가 증가하면서 군인의 정체성은 총과 삽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군인 개인의 일상과 생애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와 군 조직, 건설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처럼 물질-인간은 다양한 양태로 얹혀있고, 이 얹힘(들)은 시장화 이후 일상의 세계의 복잡화 양상을 보여준다. 물질과 그 속성, 사람의 의지/욕망/선택, 제도적 규범, 환경적 조건이 어떻게 내부-작용하느냐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다른 양상들이 발현된다.

나. 주제(현상)별 물질 파악

일상에 산재한 다양한 물질은 그 주제/현상에 따라서도 분류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사례를 들었다. 다만 이 여섯 가지가 분류의 전부는 아니며 연구의 특성이나 연구자에 따라 분류의 범주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물품에 따라 동시에 여러 분류에 속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어느 하나의 분류에 소속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해당 물질이 다양한 현상에서 포착될 정도로 주민의 일상에 폭넓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 표에 분류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일부 나열해보았다.

〈표 2〉 주제/현상을 중심으로 추출한 비인가 요소

주제별 물질	사례
통치/규범	동상, 초상화, 노동신문, 혁명역사, 휘장(뱃지)
일상/문화	TV, SD/USB, 노트북, 휴대폰
정체성/욕망	화장품, 5장 6기, 눈썹문신(성형 수술), 병입생수
의식주	가마, 함지, 바게뜨, 아궁이, 경대, 탄, 나무, 5장 6기, 쌀, 김치
장사	매대, 자전거, 장마당, 고양이 담배, 사업, 대방
유행	휴대폰, 장군복, 당상, 화장품, 헤어스타일

출처: 연구자가 기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으로 통치/규범적 성격이 뚜렷한 물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는 그 정치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북한 특유의 물질들이 존재한다. 상의에 달린 크고 작은 초상화, 각 가구의 주거지부터 기차역과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액자에 담겨 걸린 초상화와 정성걸레, 지도자의 이름과 언설이 별도의 글씨체로 표기된 노동신문 1면, 동상과 사적지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일상적으로 중요한 물질이다. TV는 북한주민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질이다. 최고지도자들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나 간부에게 TV를 선물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저녁시간 모여앉아 TV를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왔다. 시장화 이후에는 TV를 개조하여 USB를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개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하고, 공급되지 않는 전력을 대신하여 대체에너지를 끌어와 TV 시청을 하거나 ‘노트텔’ 같은 소형의 대체 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세계 콘텐츠를 접하기도 한다.

셋째, 정체성과 욕망의 충족에 관련된 물품이다. 가령 화장품은 미의식, 유행, 꾸미는 것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물품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산이 증가하며 북한산 화장품 또한 개선되고 있다. 때문에 화장품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5장 6기 역시 북한 특유의 “갓취두기” 관행을 보여주는데, 시장화 이후 소비의 욕망 충족과 정체성의 발현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6가지 전자기기 ‘6기’의 경우 물건의 원래 제작 목적과 다르게 전력부족 때문에 일상에서 그 기술적 목적이 퇴각하고 인정과 같은 사회적 목적이 주를 차지하기도 한다. 넷째, 의식주 생활에 관련한 물질로 주로 생활 필수품이다. 예를 들어 빨래나 음식을 담아두거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수도 대신 물을 길고 담아둘 때 활용하는 “함지, 바께쯔”, 불을 때고 밥을 할 수 있는 아궁이 등이 있을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전쟁 이전부터 집안 대대로 물려졌던 함지를 계속 쓰기도 하지만 시장화 이후 플라스틱으로 된 “바께쯔”가 등장하기도 한다. 아궁이의 경우 연탄이나 나무를 때는 주택에 갇혀져 있는 물질/시설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에서도 평천구역을 제외하고는 중앙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에서 없던 아궁이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물질/비인간을 통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 인식 변화를 추적해나가는 것은 시장, 통치의 영역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다섯 번째, 장사에 필요한 물질/비인간 요소이다. 장마당의 매대, 매대 비용, 집에서부터 물건을 담아 가고 또 담아 오는 가방/천, 돈, 장사자리(지리적 위치), 담배와 술 등의 뇌물/연줄 물품, 시장 관리위원회 등과의 네트워크 및 관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사종목에 따라 필요한 물질이 다를 것이고 같은 물질이 역시 개인의 장사 종목이나 방식에 따라 용법과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여섯 번째, 유행 상품/서비스이다.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휴대폰, 그 뒤를 이어 태블릿, PC 등의 IT 기기도 확산 추세에 있다. 휴대폰의 등장은 이미 다수 연구들이 밝혔고 이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북한 주민의 일상적 관행과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 물질 키워드로 일상생활을 재구성, 분석하기

도출한 물질의 이름은 구체적 연구방법(문헌분석, 법률분석, 심층면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물질 키워드는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공간문헌이나 북한 법률을 추출할 때 해당 키워드, 관련

있는 단어 및 표현 등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주요 이슈, 권장과 금지 사안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심층면담은 이미 도출한 비인간 요소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 물질의 등장 및 사용 시점, 물질에 대한 오감적 경험, 관련 소문 및 사건, 가격, 유행 여부와 양상, 당국의 허가 여부, 명칭의 유래, 사용 방법, 기술적 원리, 자구적 개조 방법, 대체 물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상영역이 시기, 지역, 사안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 파악해볼 수 있다. 또한 일상사의 차이를 조직하는 주요 원인들, 일상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변화나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상을 관통하는 유사성, 그 유사성이 갖는 특정한 방향/목적 등을 읽어낸다. 이러한 비교대조의 기법은 신유물론적 연구를 산발적이고 지극히 다원적인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한 변화의 방향과 변화를 조직하는 주요 동력을 분석하도록 돕는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시점이 면담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래되었거나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사정으로 물질에 대한 경험이 상세하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억이 변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회절적 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기록하고 흔적의 빈틈 혹은 굴절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교차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가 면담이나 문헌자료 수집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의 키워드를 수집해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이나 사전 조사로는 충분히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심층면담이나 문헌 분석을 진행할수록 새로운 물질들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관련된 물질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포착하되, 이를 선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기호학적 분석

물질을 소재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기호학적 분석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북한당국 차원에서 물질/상품을 적극 선전하며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생산하고 있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질에 관한 홍보 이미지/영상은 물질을 의미화하거나 물질에 특정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물질-주민 관계, 사회·기술적 관련 이슈, 소비 및 물질에 대한 정책기조, 시장 상태,

향후 발전 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기호학적 분석은 심층 면담이나 기존의 공간문화 분석과는 일견 다른 내용들을 일러줄 수 있다.

가령, 병입생수의 경우⁴³ PET 병, 수원지로부터 취수한 물, 상표 따지, 생산 공장, 종사자, 기업, 물 정책, 수질오염, 건강/보건위생 담론, 시장 등이 연루되어 있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이미지는 상품의 화폐가치와 밀접하게 연관 되는데,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순수한, 깨끗한, 맑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으로 부터의’ 이미지는 하나의 주요한 홍보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병입생수는 자연-인공, 자연-기술(문명)의 혼종체라 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북한당국 주도로 PET 병에 인입된 포장 샘물의 내수 상품화가 급격하게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파랑거나 투명한 페트병 안에 물을 담고, 주로 흰색과 파란색을 활용하여 산, 바다, 강 등의 이미지를 그려넣은 비닐 라벨을 부착 한다. 플라스틱 뚜껑으로 밀봉한 ‘샘물’은 룡악산 샘물, 강서약수 등 북한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거나 물이 좋고 깨끗하다고 소문난 지역의 이름을 붙여 판매된다.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맑고 푸른” 페트병이 줄지어 서있고 그 주변에는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노동자로 보일법한)이 품질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듯 미소를 짓거나 열중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다.

그런데 사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유기화합물 플라스틱과 페트병은 누가 보아도 인공물이며 그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은 “샘물”이 아니다. 컨베이어벨트와 공장 기계의 스테인레스 스틸과 오랜 시간 접촉하였던 물이 인공체(플라스틱)에 ‘비 자연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원지에서 떠나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은 더 이상 샘물로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물을 파는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인공물에 “생수, 샘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연의 표식을 그려넣는다. 이러한 모순적 광고/판매전략은 그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북한에서 환경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인성 질병이 빈번할 가능성, 물과 건강의 관계를 강조하는 담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샘물병을 들고 다니는 주민은 유행을 따르는 사람, 그만큼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다.⁴⁴

⁴³ 병입생수는 자연-유기체-기계가 혼종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글로벌 기업의 병입 생수가 갖는 사회기술적 힘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이준석·김연철, “사회이론의 물질적 전회 (material turn): 신유물론(new materialism), 그리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객체 지향존재론(OOO),” 『사회와이론』, 제35호 (2019), pp. 19~21.

⁴⁴ 박민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북한 병입생수 사례의 주요 특성은 ‘판매-홍보-통치의 일체화’이다. 병입생수 홍보 콘텐츠가 노동신문과 공영방송을 통해 통치의 필요에 따라 방영된다. 가령, 3부작 드라마 “사랑의 샘” 한 꼭지에는 강서약수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세계적으로 이름났다는 프랑스의 페리에 약수”를 시음하는 장면이 나온다.⁴⁵ 극중 인물들은 페리에와 강서약수를 비교하면서 페리에를 “인공탄산”이지만 강서약수는 자연탄산이기에 “우리 강서약수가 결코 다른나라(서유럽) 약수들 못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계를 거쳐 인공적으로 인입된 혼종체라는 점에서 강서약수나 페리에나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우리 강서약수에는 단 한치의 허용 수치도 있을 수 없소” 라고 주장하는 “항일 혁명투사의 손자”가 개입하여 물질성을 ‘담보’하는 점은 북한특유의 사회-물질성을 보여준다.

상품을 들거나 만지며 웃는 지도자의 모습 역시 상품/물질의 탁월함을 보증해주는 장치로 활용된다. 하얀 가운-밀봉된 파란 플라스틱 용기-초록색 공장 벽면과 바닥-파란 빛과 자연형상 로고-“위생안전” 표지-현지지도-지도자의 엄함은 ‘기억’으로 박제되어 지속적으로 재현된다.⁴⁶ 이 과정에서 사이보그는 사회-기술적으로 그 가치와 효력을 보증받는다. 북한 사회에서 생소한, 어쩌면 “썩고 병든 자본주의”의 대표적 현상일 수 있는 병입생수의 존재가, 그 어떤 공식적 비판과 문제제기 없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며 맛 좋고 질 좋은 자연물질 “샘물”로서 그 의미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물을 돈 주고 사먹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던 북한에서 말이다.⁴⁷ 이처럼 통치-물질-주민이 얹히면서, 병입생수-주민 사이의 이질성은 조용히 삭제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탈바꿈된다.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물질이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 병입 “샘물”을 마시고 있는 북한 주민을 사이보그로 해석할 때,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자기표현의 욕망 속에 얹혀있는 일상세계가 분석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한편 통치의 입장에서, 북한당국은 절대적, 단독적 주체도 아니며 시장화 이전과 같은

시스템의 혼종적 전환 -,” p. 382.

⁴⁵ 해당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 북한 <사랑의 샘>, <통일전망대>, MBC, 2011.11.14.,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2963444_29114.html> (검색일: 2022.05.05.).

⁴⁶ 해당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즘 북한은] 생수 마시면 부자? ...北 곳곳 샘물공장 준공 외”, <남북의 창>, KBS, 2021.10.1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2331>> (검색일: 2022.05.05.).

⁴⁷ 박민주, “북한 여성의 물/위생 지식과 일상적 기술실천: 북한 여성의 과학기술적 행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제21권 2호 (2021), p. 251.

장악력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주민과 물질의 얽힘을 예의주시하며 그 내부-작용에 상시적으로, 기민하게 관여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북한당국이 그 통치를 유지해나가는 하나의 원리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물질을 매개로 통치와 주민의 일상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장화 이후 북한 사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과 다른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북한의 자연-기계-인간의 결합을 읽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미시적이기만 하지 않으며, 주민을 타자화시키지 않고 거시-미시를 연계시키며 주민 생활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행위적 실재론과 사이보그 선언을 중심으로, 북한 연구에서 신유물론이 갖는 방법론적 함의와 구체적 활용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향후 북한 연구에서 ‘물질’을 분석도구로 활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할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유물론에서 자주 발견되는 은유적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을 읽고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다소 거칠게 말해서 신유물론을 북한학적으로 전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이보그 선언의 경우 통용되는 이미지처럼 하이테크-인간이 아니더라도 물질-인간, 동물-인간, 자연-인간, 인공-자연의 다양한 혼종에 적용하여 차별/억압에 대한 전복적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해러웨이는 기계/기술이나 사이보그를 하이테크 수준으로만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사이보그의 혼종성을 가장 극적으로,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이보그를 현실에서 실현불가능한 물리화학적 접합이라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현실 수준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연/동물과의 일체화라는 것은 일방적 자연 개조와 무분별한 개발에서 탈피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최근 UN의 SDGs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물질-인간의 얽힘을 다루기 위해서는 물질성, 기술 특성 등에 대한 일견 공학적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작용, 질병’으로 불리는 현상들은 인간의 삶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던 물질/비인간이 예상 밖의 혹은 궤도를 벗어나 특유의 물질성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물질성이나 물질과 관련한 기술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더 깊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북한 주민의 겨울은 추운데다가 겨울을 날만큼 충분한 양의 연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겨울이 힘든 것은 단순히 추워서만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이유들과 연관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물인데, 물은 영하의 온도에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되면 물(액체)일 때 보다 부피가 커진다. 이러한 물질성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 관한 분석이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동파되기 쉽고, 부피차이로 인해 하천의 물 위에 얼음이 뜨게 되어 주민들이 취수하기도 매우 어려워진다. 얼음을 깨고 물을 취수해온다 해도 영하의 온도에서 다시 얼어버리면 가열해서 물을 녹여야하는 공정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물질성의 고려는 생활세계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북한 주민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물질과 물질에 대한 기억에 접근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단순히 인간을 위해 비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 접근만을 목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석/관찰하는 세계의 일부임을 고려할 때, 물질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속성과 북한 연구의 자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그들의 얽힘에 관한 가장 직접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물론, 신유물론은 유용하지만 그만큼 학술적으로 아직 정제되지 않아 전반적 지형의 분석이 향후 과제로 남겨진 측면이 존재한다.⁴⁸ 때문에 연구자에게는 아직 매우 까다로운 도구이지만 그만큼 범용성을 담보해주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주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이 글은 북한 연구에 신유물적 접근 일부가 유효한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 제출: 5월 7일 ■ 심사: 5월 26일 ■ 채택: 6월 16일

⁴⁸ 이준석·김연철, “사회이론의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 신유물론(new materialism), 그리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객체지향존재론(OOO),” p. 12.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유환 외.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 연구센터 편.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검은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양코마우스TM를_만나다』. 서울: 갈무리, 2007.
-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서울: 동문선, 2002.
- 임소연. 『과학기술의 시대. 사이보그로 살아가기』. 파주: 생각의 힘, 2014.
- 제인 베넷.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서울: 현실문화, 2020.
- 카렌 바라드·릭 돌피언·이리스 반 데어 툴. “카렌 바라드와의 인터뷰”. 릭 돌피언·이리스 반 데어 툴 엮음. 박준영 역. 『신유물론』. 경기도: 교유서가, 2021.
- 퀸탱 메이야수. 정지은 역. 『유한성 이후』. 서울: 도서출판 b, 2010.

2. 논문

- 김경렬.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분석 :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 박민주.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北韓研究學會報』. 제25권 2호, 2021.
- _____.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시스템의 혼성적 전환 -.”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 2021.
- _____. “북한 여성의 물/위생 지식과 일상적 기술실천: 북한 여성의 과학기술적 행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제21권 2호, 2021.
-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2008.
- 이준석·김연철. “사회이론의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 신유물론(new materialism). 그리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객체지향존재론(○○○).” 『사회와 이론』. 제35권, 2019.
- 이지선. “물질과 의미의 물의(物議) 빚기 -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 -.” 『시대와 철학』. 제32권 제1호, 2021.
- 이현희. “남북민간교류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2020.
- 임소연.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3호, 2019.
- 정호근. “ANT로 본 북한 핵·동맹 네트워크: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제63권 4호, 2020.

조주현.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한국여성철학』. 제25권, 2016.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캐런 바라드. 박미선 역.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문화과학』. 제57권, 2009.

홍민.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Gamble, Christopher N., Hanan, Joshua S., and Nail, Thomas.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vol. 24, 2019.

3. 기타자료

『로동신문』.

『민주조선』.

〈통일전망대〉, MBC. <<https://imnews.imbc.com>>

〈남북의 창〉, KBS. <<https://news.kbs.co.kr>>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통일연구원 비공개 내부자료.

The Intersection of North Korean Studies and
New-materialism Theory: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of ‘Agential Realism’ and
‘Cyborg Manifesto’ for the Study of Daily Life

Park, Min Ju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Agential Realism’ and ‘Cyborg Manifesto’ to the study of daily life in North Korea, paying attention to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of material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after marketization.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studies, which requires concentration on humans, the theory of new-materialism does not result in alienation or fragmentation of North Koreans, but rather helps them analyze their daily lives in a timely manner. When reconstructing daily life through matter and attempting semiotic analysis, the connection between governance-material-daily life can be more clearly understood.

Key Words: North Korean Studies, Daily Life, North Korean Studies,
New Materialism, Agential Realism, Cyborg Manifesto,
Socio-Material.